

<감히, 엄두를 내다>

"너네는 그런 설렘이 없지?"

'삐삐쳤던' 어른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늘 세상과 연결되어있는 우리 세대에게 종종 이렇게 묻곤 했다. 그놈의 '삐삐'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물건에 의해 주어지는 시간적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는 절절한 설렘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수차례 들은 바 있다.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과 삐삐는 결국 누군가와 연락하기 위한 도구, 누군가와 달아있고자 하는 욕망이 투영된 도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그 두 도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구체적인 경험과 감정의 결은 너무나도 다르다.

사실 도구는 인간에게 늘 이런 존재였다: 새로운 도구의 발명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인간 욕망이 투영된 또 하나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인간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어왔다. 즉 태초부터 일관되어 왔던 인간의 욕망이 도구를 낳고, 그 도구는 역으로 인간에게 이전과는 다른 체험들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편만능의 기계'인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그것이 도구로서 포괄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만을 고려하더라도 이전의 그 어떤 도구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거대한 변화들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인공지능의 대중화, 양자컴퓨터의 도입, 사회시스템의 알고리즘화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앞으로의 변화들은 그 파급력과 영향력의 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해 '그런 설렘'이 사라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들을 수반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학계와 산업계에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 닥쳐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의 목소리가 뒤섞여있다. 컴퓨터는 진정 대중적인 도구로서 사회 시스템 곳곳에 편입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인류는 그때 일어날 변화들을 감당하고 수용하기 위해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류가 대비해야 하는 것들에 관한 논의들 중 필자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능력'에 대한 담론이다. 오늘날 전 세계 수공업과 제조업의 단단한 뒷받침 역할을 하고 있는 단순노동의 경우, 사실 인간보다 반복적인 업무를 저비용과 고효율로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몇 줄의 알고리즘이다. 가문을 통해 수 세대에 내려온 '손 맛'으로 작업하는 장인(craftman)과 같이 제작의 과정이 쉽게 디지털화 될 수 없는 일부 업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동이 기계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고유의 능력에 대해 자문하는 것은 철학적이고 심오한 논의가 아니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처절한 질문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인간이 '상상'하고, '회의'하고, '보는'능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즉,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비단 최근에서야 나온 것 만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짐승과 구분되는 인간의 속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들 역시 논리와 이성, 즉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인간을 진정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육체와 쾌락, 감정보다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것

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고대그리스의 이러한 사상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계보를 뒤이은 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상상하고 회의하는 능력. 이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늘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고, 지식인 고유의 정체성이었다. 오늘날 컴퓨터의 눈부신 발전 앞에서 주춤거리는 대중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인간의 이러한 정신적 능력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 역시 같은 논리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고유한 능력' 담론은 지나치게 엘리트주의적인 해결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중들이 과연 컴퓨터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컴퓨터가 모든 단순노동을 맡아하는 사회에서, 대중들은 과연 '단순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백수가 될 것인가?

이때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다: 바로 '그녀(Her)이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테오도르의 직업은 '편지 써주는 사람'이다. 인공지능을 연인으로 두는 시대에, 그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편지를 쓰며 사람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따뜻했던 영화 색감만큼이나 얼마나 아름다운 업무이던지, 영화를 본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따뜻한 필력으로 편지지를 채우는 그의 모습이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 그의 직업은 지식인의 '상상'과 '회의'하는 일과는 거리감이 있지만 여전히 '인간 고유의 능력'에 해당하는 듯하다. 더 나아가, 편지 쓰는 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으로 해오는 활동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미래 사회에 대중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상상'이나 '회의'하는 능력이라기보다도, 평소에 발견할 수 있는 자신의 조그마한 개성을 전문성으로 이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싶다. 개인의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마다의 개성을 존중하는 직업문화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까지도 수용될 분위기가 조성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 고유의 능력'에 집중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빛나는 컴퓨터의 도래는 분명 쉽지 않다.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한 변화는 장밋빛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컴퓨터의 도래를 기다리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의료 자료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왓슨, 인공지능 비서... 그러한 컴퓨터의 도래로 인류는 수많은 것에 '엄두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감히, 엄두를 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 역시 같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그 변화의 물결에 필자도 동참하겠다.